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2, pp.89-96, May 31, 201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18.4.2.89
JCCT 2018-5-12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 분석

Analysis of Status and Demand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f Low-Income Class

김현성*, 김진숙**

Hyeon Seong Kim*, Jin Sook Kim**

요 약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지역민 218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의 참여 실태 중, 저소득층의 학습역량을 살펴보면, 외국어 사용 능력 95.3%, ICT 활용 역량 66.1%, 컴퓨터 활용 능력 75.7%로 사용 및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5.7%로 나타났으며 이를 수동적인 교육 참여로 보고 자발적 참여를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2.9%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참여 및 인식은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전반적으로 43.3%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발적인 참여자가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73.3%나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희망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중 74.8%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에는 가정생활, 건강 및 의료강좌, 전문 자격 취득과정 등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이는 소득 수준이 평생교육 참여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한바, 현재 한국의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참여율도 급증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 저소득층, 평생교육, 평생교육 참여실태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status and demand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for 218 residents of low-income class according to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tatuses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the abilities to study of the low-income class were reviewed. They showed 95.3% of foreign language ability, 66.1% of ICT utilization capacity and 75.7% of computer literacy ability. And the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of low-income people was 75.7% It was considered as passive participation in education. Voluntary participation was identified and analyzed. The the actual participation rate in lifelong education was very low at 22.9%. Social participation and awareness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was 43.3% higher than that of respondents who had no participation experience. Especially, voluntary participants showed 73.3% higher than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lifelong education of low income class, 74.8%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re is wished education program. And 50.0% of them could not participate because they did not have enough time. The programs that they wanted to participate in were the programs that could help their real lives such as home life, health and medical courses, professional qualification obtaining process, etc. This indicates that the income level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bove, Korean lifelong education is emphasized and the participation rate is increasing rapidly. However, participation of low-income class in lifelong education seems low.

Key words : low-income class,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status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융합학과 박사과정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2월 26일, 수정완료일: 2018년 3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4일
Received: February 26, 2018 / Revised: March 16, 2018
Accepted: April 4, 2018
*Corresponding Author: jskim@dhu.ac.kr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Daegu Haany Univ, Korea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모든 국민의 행복과 사회번영을 위한 요소로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적, 사회적, 직업 발달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국가인적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평생교육은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과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4조(학습권) 1항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이념에 근거를 가진다. 하지만, 평생교육법이 시행이 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에도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가정, 저학력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균등화 문제가 사회적 해결과제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09년 28.0%에서 2015년 40.6%로 지속해서 증가하여 10명 중 4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에 따른 참여율은 2009년 고소득 41.5%, 저소득 20.8%에서 2015년 고소득 52.1%, 저소득 29.1%로 소득에 따른 참여율 격차는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득이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저소득층의 저조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학습기회로부터 분리되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격차로 인해 계층이동과 사회통합을 저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1950년대 프랑스의 정책적 담론의 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적 보호망에 누락된 사람들을 지칭하고, 그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통상 이해된다. 이후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증가로 말미암아 이반한 청년들과 고립된 개인을 포함하는 정의로 확대되었다[4]. 계층 이동성의 약화는 세대 간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상과 맞물리게 되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녀의 계층이 결정되는 빈곤의 세습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의 고착화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하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의 단절 및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여 사회통합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더욱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3][4][5][6].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의 증대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부터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큰 성과가 없어 2011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평생교육의 상업화와 경기침체 속에서 계층·지역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사회양극화를 더욱 악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평생교육 참여에 있어 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층 고착화의 방지는 우리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해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2].

평생교육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자격 등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오늘날의 사회와 경제는 점차 지식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적 책임, 사회적 일체감, 경제적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본다. 따라서 국민들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KÖLN CHARTER-Aims and ambitions for lifelong learning).

이처럼, 평생교육이 생애와 전 계층을 망라하여 그 필요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 내 하위계층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나 발전을 위한 자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저소득층에 관련된 내용은 소득에 따른 참여율만 알 수 있을 뿐,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실태를 알아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대상은 단순한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항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자체에 선정된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유의표집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만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연령대 중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항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자체에 선정된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을 위해 저소득층과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는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을 면접자로 구성하고, 면접자들이 지역 저소득층을 유의표집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회수된 설문지는 260부이다. 여기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유효자료는 21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설문지이며, 2006년도에 실시된 평생학습 실태조사 기초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조사 시 수정 및 보완한 조사도구[1]를 전국단위 조사가 아닌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회수한 설문지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218부를 SPSSWIN ver18.0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습역량을 빈도분석과 다중응답분석하고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를 참여여부, 참여교육과정, 참여당시 사회적 신분, 참여목적, 교육성과 등 문항별로 빈도분석과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형식교육 참여인원과 비형식교육 참여인원의 합에서 동시참여인원을 제하고 이를 전체 대상인원으로 나눈 값을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로 보았으며, 보다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비형식교육) 중 자발적 참여를 구분하여 재차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 참여 및 인식을 알고자 문항(사회 참여 및 인식)의 문항을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참여 희망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장애요인, 접근성을 빈도분석과 다중응답분석 그리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학습역량 중 외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응답으로 영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8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미만'이 6.0%,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 2.8%, '적어도 한 달에 한 번'과 '매일 혹은 거의 매일'이 1.4%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9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 0.9%, '한 달에 한 번 미만'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매일 혹은 거의 매일'이 0.5%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9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 1.4%, '한 달에 한 번 미만'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 0.9%, '매일 혹은 거의 매일'이 0.5%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9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매일 혹은 거의 매일'이 0.5%로 나타났다.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체 세부문항별 수치를 평균으로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9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미만'이 1.8%,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 1.3%,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 0.9%, '매일 혹은 거의 매일'이 0.7%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외국어 사용 빈도
Table 1. Frequency of use of foreign languages

구분	전혀 사용하지 않음		한 달에 한 번 미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매일 혹은 거의 매일	
	N	%	N	%	N	%	N	%	N	%
영어	193	88.5	13	6.0	3	1.4	6	2.8	3	1.4
중국어	213	97.7	1	0.5	1	0.5	2	0.9	1	0.5
일본어	210	96.3	2	0.9	3	1.4	2	0.9	1	0.5
기타	215	98.6	0	0.0	1	0.5	1	0.5	1	0.5
계	831	95.3	16	1.8	8	0.9	11	1.3	6	0.7

인터넷 사용 빈도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일 혹은 거의 매일'이 15.1%, '한 달에 한 번 미만'이 9.2%,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매일 사용하지는 않음)'이 5.5%,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매주 사용하지는 않음)'이 4.1%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인터넷 사용 빈도
Table 2. Internet Usage Frequency

사용 빈도	N	%
전혀 사용하지 않음	144	66.1
한 달에 한 번 미만	20	9.2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매주 사용하지는 않음)	9	4.1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12	5.5
매일 혹은 거의 매일	33	15.1
합 계	218	100.0

컴퓨터 활용 빈도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미만'이 11.5%, '매일 혹은 거의 매일'이 6.4%,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매주 사용하지는 않음)'이 2.8%,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매일 사용하지는 않음)'이 1.8%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활용 능력 없음'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단계 수준(파일이나 폴더 복사, 이동 가능)'이 13.3%, '2단계 수준(프로그램 설치 및 삭제 가능'이 9.2%, '3단계 수준(컴퓨터 오류 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 기본적 문제 해결 가능)'이 1.8%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컴퓨터 활용 빈도
Table 3. Frequency of computer utilization

활용 빈도	N	%
전혀 사용하지 않음	169	77.5
한 달에 한 번 미만	25	11.5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매주 사용하지는 않음)	6	2.8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4	1.8
매일 혹은 거의 매일	14	6.4
합 계	218	100.0

컴퓨터 활용 능력은 '활용 능력 없음'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단계 수준(파일이나 폴더 복사, 이동 가능)'이 13.3%, '2단계 수준(프로그램 설치 및 삭제 가능'이 9.2%, '3단계 수준(컴퓨터 오류 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 기본적 문제 해결 가능)'이 1.8%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컴퓨터 활용 능력
Table 4. Computer literacy

활용 능력	N	%
활용 능력 없음	165	75.7
1단계 수준(파일이나 폴더 복사, 이동 가능)	29	13.3
2단계 수준(프로그램 설치 및 삭제 가능)	20	9.2
3단계 수준(컴퓨터 오류 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기본적 문제 해결 가능)	4	1.8
합 계	218	100.0

평생교육 참여율은 아래와 같이 형식교육 참여인원과 비형식교육 참여인원의 합에서 동시참여인원을 제하고 이를 전체 대상인원으로 나눈 값을 평생교육 참여율로 본다.

$$= \frac{\text{형식교육 참여자} + \text{비형식교육 참여자} - \text{동시참여자}}{\text{전체 대상인원}} \times 100$$

*자료: [1]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체 대상인원(218명) 중 형식교육 6%(13명), 비형식교육 75.2%(164명)로 총 81.2%(177명)의 참여인원에서 동시참여인원 5.5%(12명)를 제한 75.7%(165명)로 나타났다.

표 5.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
Table 5. Service rate of lifelong education among employees

참여여부	N	%
형식교육참여자	13	6.0
비형식교육참여자	164	75.2
동시참여자	12	5.5
전체 응답자	218	100.0
평생교육 참여율	165	75.7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알아보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활사업이나 지역복지기관들이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과 같은 법정의무교육이나 직무・소양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들은 대체적으로 수동적이고 일회성이다. 이를 수동적인 교육참여로 보고, 비형식교육의 참여 여부를 알아보는 설문지 문항에서 일정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직장 내 직무 연수 프로그램,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자발적 참여로 보고 그림과 같이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율을 알아 본 결과 전체 대상인원(218명) 중 형식교육 6%(13명) 비형식교육(자발적) 20.2%(44명)로 총 57명의 참여인원에서 동시참여인원 3.2%(7명)를 제한 22.9%(50명)로 나타났다.

$$= \frac{\text{형식교육 참여자} + \text{비형식교육 참여자(자발적)} - \text{동시참여자}}{\text{전체 대상 인원}} \times 100$$

*자료: [1]

표 6. 자발적 평생교육 참여여부
Table 6. Voluntary lifetime education participation

참여여부	N	%
형식교육참여자	13	6.0
비형식교육참여자(자발적)	44	20.2
동시참여자	7	3.2
전체 응답자	218	100.0
평생교육 참여율	50	22.9

2.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참여하고 싶었던 교육이나 학습 프로그램이 있었는지에 대해 '있음'이 25.2%, '없음'이 74.8%로 나타났다.

표 7. 희망교육프로그램 유무
Table 7. Hope education program status

참여여부	N	%
있음	55	25.2
없음	163	74.8
합 계	218	100.0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참여함'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안함'이 36.4%, '참여하였으나 중도 포기함'이 5.5%로 나타났다.

표 8. 희망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Table 8. Hope education program participation

참여여부	N	%
참여함	32	58.2
참여하였으나 중도 포기함	3	5.5
참여안함	20	36.4
합 계	55	100.0

'참여함' 응답자 중 앞으로 참여하길 희망하는 교육이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다중응답결과는 '건강 및 의료강좌(보건교육, 금연교육 등)'가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생활강좌(요리, 자녀교육, 꽃꽂이 등)'는 9.5%, '컴퓨터 자격증 강좌(컴퓨터 활용, 워드프로세서 등)'와 스포츠강좌(수영, 댄스, 에어로빅, 요가, 배드민턴 등), 시민참여교육 강좌(시민교육, 인권교육 등)'는 8.3%,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과정'은 7.1%, '인문교양강좌(역사 강좌, 철학 강좌 등)'는 6.0%, '컴퓨터 강좌(정보 인터넷 소양 교육 등)'와 '음악 강좌(피아노, 플루트, 노래교실 등)', '미술 강좌(풍선아트강좌, 천연염색, 사진, 공예 등)'는 4.8%, '대학교(2, 3년제 대학)'와 '검정고시 강좌(초・중・고등학교)', '자격증 인증 과정(공인중개사/요리사/평생교육사 등)'은 3.6%, '사이버원격대학'과 '외국어 자격증 강좌(토익, 토플 등)', '취업 및 창업 준비과정(공무원시험 대비반 등)', '경제・경영 강좌(펀드, 재무 설계, 부동산 등)'는 2.4%, '대학원과 '진학 준비 강좌(편입, 대학원 준비 등)', '문해교육(한글교실, 한문교실, 어르신컴퓨터, 산수교실 등)',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직무연수, 경력개발 등)', '종교교육강좌(성경/불경 강좌 등)', '환경생태강좌(자연과학, 환경, 생태강좌 등)'는 1.2%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참여함' 응답자 희망 프로그램
Table 9. 'Participation' Responder's Hope Program

구분	N	%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과정	6	7.1
대학교(2, 3년제 대학)	3	3.6
대학교(4년제 대학)	0	0.0
방송통신대학교	0	0.0

사이버원격대학	2	2.4
대학원(석사·박사)	1	1.2
고등 학력보완교육(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0	0.0
검정고시 강좌(초・중・고등학교)	3	3.6
진학 준비 강좌(편입, 대학원 준비 등)	1	1.2
문해교육(한글교실, 한문교실, 어르신컴퓨터, 산수교실 등)	1	1.2
외국어 자격증 강좌(토익, 토플 등)	2	2.4
컴퓨터 자격증 강좌 (컴퓨터활용, 워드프로세서 등)	7	8.3
자격증 인증 과정(공인중개사/요리사/평생교육사 등)	3	3.6
취업 및 창업 준비과정(공무원시험 대비반 등)	2	2.4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직무연수, 경력개발 등)	1	1.2
경제・경영강좌(펀드, 재무설계, 부동산 등)	2	2.4
외국어강좌(생활 외국어 등)	0	0.0
컴퓨터강좌(정보 인터넷 소양 교육 등)	4	4.8
종교교육강좌(성경/불경 강좌 등)	1	1.2
인문교양강좌(역사강좌, 철학강좌 등)	5	6.0
가정생활강좌(요리, 자녀교육, 꽃꽂이 등)	8	9.5
건강 및 의료강좌(보건교육, 금연교육 등)	9	10.7
음악강좌(피아노, 플루트, 노래교실 등)	4	4.8
미술강좌(풍선아트, 천연염색, 사진, 공예 등)	4	4.8
스포츠강좌 (수영, 댄스, 에어로빅, 요가, 배드민턴 등)	7	8.3
지도자과정(마을리더, 주민자치위원 교육 등)	0	0.0
시민참여교육강좌(시민교육, 인권교육 등)	7	8.3
환경생태강좌(자연과학, 환경, 생태강좌 등)	1	1.2
참여희망프로그램 없음	0	0.0
합 계	84	100

‘참여안함’ 응답자 중 앞으로 참여하길 희망하는 교육이나 학습 프로그램은 ‘자격증 인증 과정(공인중개사/요리사/평생교육사 등)’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생활강좌(요리, 자녀교육, 꽃꽂이 등)’는 13.9%, ‘시민참여교육강좌(시민교육, 인권교육 등)’는 11.1%, ‘취업 및 창업 준비과정(공무원시험 대비반 등)’과 ‘미술강좌(풍선아트강좌, 천연염색, 사진, 공예 등)’는 8.3%,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과정’과 ‘컴퓨터 자격증 강좌(컴퓨터활용, 워드프로세서 등)’,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직무연수, 경력개발 등)’, ‘건강 및 의료강좌(보건교육, 금연교육 등)’, ‘스포츠강좌(수영, 댄스, 에어로빅, 요가, 배드민턴 등)’는 5.6%, ‘진학 준비 강좌(편입, 대학원 준비 등)’와 ‘경제・경영강좌(펀드, 재무설계, 부동산 등)’, ‘외국어강좌(생활 외국어 등)’, ‘컴퓨터강좌(정보 인터넷 소양 교육 등)’, ‘환경생태강좌(자연과학, 환경, 생태강좌 등)’는 2.8%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참여안함’ 응답자 희망 프로그램
Table 10. ‘No Participation’ Responder’s Hope Program

구분	N	%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과정	2	5.6
대학교(2, 3년제 대학)	0	0.0
대학교(4년제 대학)	0	0.0
방송통신대학교	0	0.0
사이버원격대학	0	0.0
대학원(석사·박사)	0	0.0
고등 학력보완교육(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0	0.0
검정고시 강좌(초・중・고등학교)	0	0.0
진학 준비 강좌(편입, 대학원 준비 등)	1	2.8
문해교육(한글교실, 한문교실, 어르신컴퓨터, 산수교실 등)	0	0.0
외국어 자격증 강좌(토익, 토플 등)	0	0.0
컴퓨터 자격증 강좌(컴퓨터활용, 워드프로세서 등)	2	5.6
자격증 인증 과정(공인중개사/요리사/평생교육사 등)	6	16.7
취업 및 창업 준비과정(공무원시험 대비반 등)	3	8.3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직무연수, 경력개발 등)	2	5.6
경제・경영강좌(펀드, 재무설계, 부동산 등)	1	2.8
외국어강좌(생활 외국어 등)	1	2.8
컴퓨터강좌(정보 인터넷 소양 교육 등)	1	2.8
종교교육강좌(성경/불경 강좌 등)	0	0.0
인문교양강좌(역사강좌, 철학강좌 등)	0	0.0
가정생활강좌(요리, 자녀교육, 꽃꽂이 등)	5	13.9
건강 및 의료강좌(보건교육, 금연교육 등)	2	5.6
음악강좌(피아노, 플루트, 노래교실 등)	0	0.0
미술강좌(풍선아트강좌, 천연염색, 사진, 공예 등)	3	8.3
스포츠강좌 (수영, 댄스, 에어로빅, 요가, 배드민턴 등)	2	5.6
지도자과정(마을리더, 주민자치위원 교육 등)	0	0.0
시민참여교육강좌(시민교육, 인권교육 등)	4	11.1
환경생태강좌(자연과학, 환경, 생태강좌 등)	1	2.8
참여희망프로그램 없음	0	0.0
합 계	36	100

‘참여안함’ 응답자 중 교육・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참여 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족부양에 대한 책임 등)’가 50.0%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가까운 거리에 훈련기관이 없어서'가 15.0%, '동기, 자신감 부족'과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가 10.0%,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와 '희망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인원 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가 5.0%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여안함' 응답자 참여 장애요인
Table 11. 'No Participation' Response-participation Failure Factors

참여 목적	N	%
동기, 자신감 부족	2	10.0
시간이 없어서(가족부양에 대한 책임 등)	10	50.0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3	15.0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1	5.0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2	10.0
희망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1	5.0
인원 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1	5.0
기타	0	0.0
합 계	20	100

'중도포기' 응답자 중 교육·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참여 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교육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없어서(가족부양에 대학 책임 등)'이 33.3%로 나타났다.

표 12. '중도포기' 응답자 프로그램 참여 장애요인
Table 12. 'abandonment on the way' Obstructions to participation in the respondent program

참여 목적	N	%
동기, 자신감 부족	0	0.0
시간이 없어서(가족부양에 대한 책임 등)	1	33.3
강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0	0.0
교육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2	66.7
당초 생각했던 프로그램과 달라서(프로그램 정보오류)	0	0.0
교육시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0	0.0
프로그램 수준이 맞지 않아서(너무 어렵거나, 쉬워서)	0	0.0
기타	0	0.0
합 계	3	100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의 참여 실태 중, 저소득층의 학습역량을 살펴보면, 외국어 사용 능력 95.3%, ICT 활용 역량 66.1%, 컴퓨터 활용 능력 75.7%로 사용 및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습역량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5.7%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단위 조사로 통계한 참여율(2015년 4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는 부정수급자, 소득 미신고 자영업자, 시간제 근로자, 미취업자, 등 한계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활사업이나 지역복지 기관들이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과 같은 법정 의무교육이나 직무·소양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며, 이러한 교육들은 대체로 수동적이고 일회성이다. 이를 수동적인 교육 참여로 보고 제외, 자발적 참여를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2.9%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 참여 및 인식은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전반적으로 43.3%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발적인 참여자가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73.3%나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로 사회 참여 및 인식이 높은 대상이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성장배경 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만 다른 요인이 높게 작용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이 사회 참여 및 인식 향상에 저해되는 요인을 가진 것은 아니며, 전반적 향상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기에 이는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가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 개선과 인식을 향상하는 등 사회 번영을 위한 요소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에 요구를 분석한 결과, 희망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중 74.8%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참여할 희망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 등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에는 가정생활(자녀교육 등), 건강 및 의료강좌, 전문 자격 취득과정 등 현재에 실생활에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이는 소득 수준이 평생교육 참여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

득격차가 절대적 요인은 아니라도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 의지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학력과도 관계가 있으며, 가족사 외에도 신체・정신적 장애, 성장배경 등 많은 요소가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습・고용・복지를 통합하는 근본적인 정책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의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참여율도 급증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과 평생교육이 사회 참여 및 인식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계층세습 현상, 양극화 현상, 교육 불평등 문제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평생교육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 필요하며, 집중적인 투자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근본적인 정책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현황과 실태를 통해 체계적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되며, 평생교육 전문가나 정책 설계자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는 없었으며 대체로 도・농 복합도시와 같은 소도시가 많았다. 따라서 더욱 다양한 지역과 많은 조사대상자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일반적인 이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면접자로 구성함에 따라 대체로 복지기관 이용자가 많았다. 따라서 더욱 실질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복지기관 비이용자를 포함한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일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Chang-Hwan Kim, "The Lifelong Study of Korean Adults in 2015"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2] Ji-hye Lee, In-sun Park, Suk-hee Hong, Jae-eun Chae, "A Study on the Lifelong Learning Activation Plan of the Urban Low Income Group" Seoul,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5

[3] Nam-soo Jang, "Analysis of Low Income's Parents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and Their Interest in Their Children" Master's Degree fro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9

[4] Sung-ho Yoon, "A new understanding of poverty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exclusion", Korea Research Foundation(NRF), Research Results, Dongseo University, 2006

[5] Yu-jin Yeo, Moon-gil Kim, Su-myeong jang, ChI-rok Han, "Tier structure and social mobility studie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6] Young-Ju Joo, Aek-yung Chung, Mi-ran Choi, “Identific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Goal Orientation, Teaching Presence, Approaches to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Learner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16 NO. 2, April 2016 pp.145-150

※ 이 논문은 2017년도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